

주간 증시 포커스

차기 한은총재·美 파월의장 입 관심

외국인·기관 수급변화에 대응

화학·IT·제약·바이오주 주목을

설 연휴 동안 글로벌증시 호조로 월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증시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월 회의록에서 낙관적인 경기전망으로 미국 국제금리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자 경계감이 확산되며 미국증시와 함께 함께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경기 민감주(화학, 은행, IT)를 중심으로 5000억원이 넘는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인 3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지수는 245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도 주초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주간기준 3%넘게 상승하며 874포인트로 마감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차익실현 매물로 순매도를 보이고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와 IT를 중심으로 주간기준 3853억원 순매수하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주중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증시는 연준이 의회에 보고한 반기통화정책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폭넓은 개선을 보이고 불기도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점진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10년물 국제금리가 하락하며 기술주와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3대지수 모두 1%이상 상승했다.

이번주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 오는 27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임기 중 마지막 회의로 금리동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정상화(금리인상)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차기 한은 총재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미국 제롬 파월 FRB의장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미국상하원 청문회에 출석, 반기 통화정책 보고 및 질의 응답을 갖는데 파월 의장의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 능력 및 경기판단 그리고 금리 정상화 속도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다음달 21~22일 예정된 FOMC 회의 이전에 미국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 생각된다. 파월 의장은 의회보고에서 긍정적인 경제전망과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시점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후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강화되며 상승 전환한 국내증시는 주말 미국증시의 상승으로 주초 상승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주 언급했듯이 글로벌증시와 함께 국내증시도 변동성 구간에 진입해있고 특히 국내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속에 글로벌 경기 상승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화학, 소재업종과 은행, 증권, IT 등 경기 관련주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설 지나고 날씨 풀리니... 들쭉였던 채소값 다시 하락

오이·애호박·시금치 등 3~21% 떨어져

월동배추·무, 한파 피해로 상승세 이어져

설 명절 직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동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줬던 채소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명절 성수기가 지나며 수요가 줄어들고 날씨가 풀리면서 주요 농작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 중이다. 반면, 한파 피해가 컸던 겨울배추와 무는 가격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지난 12일 기준 1만5313원이던 오이(10개)의 소비자 가격은 이날 1만1954원으로 21.93%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1만3250원)보다도 9.78% 낮은 수준이다. 개당 2631원까지 치솟았던 애호박도 2085원으로 9.78% 떨어졌고, 시금치도 1kg당 6098원에서 5908원으로 3.12%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시설재배 농작물의 경우 겨울철 이어진 한파로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난방비 소요가 많아 가격이 올랐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도 덜어져 덩달아 채소값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날 파(1kg)의 가격도 3614원으로 명절 전

4224원보다 14.44% 하락했고, 풋고추는 100g당 2750원에서 1677원으로 39.02%나 감소했다. 피망 역시 100g당 1507원으로 명절 전 1754원보다 14.08%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겨울철 한파로 냉해 피해가 컸던 월동배추와 월동무의 가격은 시설재배 작물과 달리 여전히 높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명절 전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물량을 방출하는 등 대책이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1포기에 4576원까지 치솟았던 월동배추의 이날 소비자 가격은 4306원으로 5.9%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평년(2952원)에 비해 45.87%나 높다.

월동무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 명절 전 1개

당 2604원이던 가격은 이날 들어 2725원으로 4.65% 증가하면서 매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추세다. 평년(1486원)보다는 무려 83.38%이나 비싸다.

월동배추는 90%가 해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추위에 걸맞고 속잎뿐 아니라 뿌리까지 얼어버리는 냉해를 입어 생산량이 평년 대비 7~10% 수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 95%상당 생산되는 월동무 역시 땅속 부분까지 얼어 생산량이 평년 대비 16~26% 수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재배와 달리 겨울철 노지에서 자라는 무와 배추는 한파 냉해를 입으면 날씨가 풀려도 생산량이 회복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신북농협 조합원 '주산지 현장 영농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5일 영암 신북농협(조합장 이기우) 조합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산지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평소 영농생활로 바쁜 탓에 농협 교육원 인교가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편의를 증진시켜주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 사업 중 하나로 마련됐다. 농협장년교육원(원장 명정식)이 관계자들이

신북농협을 직접 방문해 협동조합 이념교육 및 유통가격변화와 품종갱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대봉감과 단감 재배시 예로사랑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명정식 농협장년교육원장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농기술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주산지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aT, 평창올림픽 연계 농식품 수출상담회 열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2018·BKF'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BKF 행사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개최된 전 세계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뿐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베트남 등 20개국 73명의 해외 농식품 바이어와 국내 199개 수출업체가 만나 1억5000만불의 수출상담 및 181만불의 현장계약(MOU)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 수출계약을 맺은 작물은 신선 딸기(15만불·미국), 유자차 등 차류(31만불·일본), 딸기주스(68만불·중국) 등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쌀 생산조정제 7.2%로 저조 ...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인 생산조정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타작물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청 면적이 3599ha로, 목표 대비 7.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

업신청 기한 연장,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대상자 선정시 청년농업인을 우선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생산확대가 예상되는 콩·조사료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ha당 평균 340만원)을 고려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이 많다"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4월20일 이전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보조금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협)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교부한 해협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다만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어도 지급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